



강정숙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1. 머리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발표회가 2월 부터 여러 곳에서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런데 여성, 젠더 관점을 반영한 경우는 드물다. 작년 8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학술발표회 <3.1 혁명-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여성독립운동>과 올해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주체가 된 <3.1운동 10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발표된 소현숙의 [3.1 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이외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3.1운동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3.1운동 당시 여성들보다 더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

3.1독립선언서, 임시정부 선언문(1919.4.11.) 등에서 언급되었던 독립, 자유, 인도, 정의, 평등, 평화

등의 용어는 지금도 의미있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이러한 주제로 3.1운동을 다루려면 오늘의 문제와 더불어 젠더적 관점은 당연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면은 귀중하다.

이 글은 제한된 자료와 부족한 연구 속에서나마 여성사의 흐름 속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초기 여성들의 활동과 그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독립운동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 2. 3.1운동 전사 : 한말 일제 초 여성들의 구국운동

국가 민족의 위기라는 최대 과제에 가려 신분문

\*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전<한국정신대연구소> 연구원 역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2005년부터 2009년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관을 지냄. 현재는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음.

제나 성차별 문제 등은 운동의 핵심과제로 되지 못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여성들은 몇가지 과제를 제기하며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양반층 여성 일부는 교육을 받았고 제한적이었지만 표현할 장을 확보하였지만, 개항 이후에도 일반서민 여성들이 삶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여성교육을 받을 기회는 거의 봉쇄되어 있었다. 개항 후 구미열강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자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곳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여성선교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1886년은 이화학당이 미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1887년에는 정신여학교(처음에는 연동여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가 미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서구의 근대적 가치가 식민지화한 조선 현실과 관련하여 굴절되었지만 한국사회에 상당한 새바람을 일으켰다.

기독교계 여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도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의 관립 여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1898년 9월 이조이[李召史], 김조이[金召史] 등은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한국 최초의 여권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여 관립여성교육기관 설치와 남성과 동등한 직업을 가질 권리 등에 대해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은 이후 1900년대 국권탈취위기 속에서도 국권회복운동과 함께 꾸준히 확산, 실천되고 있었다.

갑갑한 조선 현실의 타개책을 새로운 신념이나 종교, 교육을 통해 찾으려는 시도가 대한제국시기에는 합법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여기에 천주교나 개신교가 그 요구의 일부를 만족시키면서 영향력을 확산시켰고 특히 잦은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생명을 잃던 시기였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 등이 습득한 의료지식은 당시 한국사회에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

었고 이를 통해서도 기독교 선교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 김마리아나 황애스터처럼 2.8운동, 3.1운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독립운동가에게도 가족원의 병과 선교사의 치료구제는 기독교 전도에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의 의병, 1907년 군대해산으로 인한 정미의병 등은 무력항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고, 계몽운동층은 식산농업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하려고 교육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1910년 일제 강점하에 들어가자 국내에서는 많은 이들이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만주, 중국, 러시아, 미주 등지로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일반 민중들도 다수 국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낯선 외국 땅에서 생활하며 토대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조선민중들이 모여지며 이후 독립운동의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

의병은 여성들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의병의 의식주 조달 등에 민중의 도움 특히 여성들의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지주이며 지역 유지인 양반유생출신의 병장이 서민의병으로 바뀌면서 더욱 그러하였다.

여성들은 남성의병에 대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가 의병으로 직접 투신한 이들도 있었다. 강원도에서 화서학파 집안의 일원으로서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활동한 윤희순(1860-1935), 전라남도 일대에서 남편 강무경과 함께 정미의병의 일원으로서 의병활동을 한 양방매(1890-1986) 등이 그러하다. 윤희순은 정미의병시기에 춘천에 기반을 둔 시가와 그 지역민을 기반으로 “안사람 의병가”를 만들어 주위 여성들의 항일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여자

의병을 조직하고 자신은 의병장을 하였으며 군자금 모집에도 힘썼다.

1910년 병합 전후하여 의병운동측이나 계몽운동측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하여 무장투쟁과 교육운동을 수행하였다. 윤희순일가를 포함한 의병 가족 40-50가구는 국외로 이주하면서 윤희순은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노학당(老學堂) 등을 통해 인재 양성도 함께 하였다. 국외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상적 영역도 확대되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기록한 <일생록>에는 자신이나 남편과의 이야기 보다 시부와 아들의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은 시대적 한계라 하겠다(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편, 2013).

한국인 여성독립유공자로서 대통령장을 받은 남자현도 의병과 관련있다. 영양에서 출생한 그는 결혼 6년만에 남편 김영주가 의병(을미의병)으로 순국하였다. 이후 남자현은 시부모를 모시고 유복자를 키우며 있다가 아들이 크고 시부모를 모두 잃은 1915년을 지나 1919년 3.1운동 시기에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 등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는 교육운동, 군자금 모집 활동, 의열활동, 독립운동가 위무활동 등을 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그가 동만주 12곳에 교회와 예배당을 세워 전도하였다고 하는 점인데 교회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이후로 추정된다(이상국, 2013). 보통 기독교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측은 계몽운동계열이었는데 의병에서 시작하여 기독교까지 접촉하였고 만주로 가서는 다시 무장투쟁 독립군 활동과 교육활동을 한 것은 역시 의병과 계몽운동의 결합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1910년대 무단통치기 국내에서는 아예 집회나

일반사회단체 활동이 불가능하였으나 학교와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 매우 제한된 공간을 통해서도 교류의 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10년대 평양 승의여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송죽회가 바로 그 예이다. 송죽회의 조직배경이 된 승의여학교의 특징은 장로교와 감리교 계통 모두 수용하는 통합학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감리교와 장로교가 각기 포교지역을 달리하여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제한된 교류를 한 데 비해 당시 제2도시인 평양에 있던 승의여학교는 통합학교여서 수용한 학생들이 전국적이었다. 이 때문에 3.1운동이나 그 이후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한 각종 애국부인회 등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여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에 적극적인 소련정부가 들어섰고, 미국에서는 윌슨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신한청년당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파리강화회의를 기하여 일제의 학정과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릴 것을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방법은 파리 강화회의 참가로 보고 김규식 파견을 결정하였다. 김규식의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국내외의 독립선언을 기획실천하였다.

이것은 곧 다양한 선을 통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만이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곳에서 독립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한말 일제 초부터 지속되어 왔던 자강, 국권회복, 민권의 열망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독립(자결)만이 아니라 민권, 여성인권, 평화 등 다양한 이념과 지향을 망라한 열기가 모여졌다. 균질적일 수는 없지만 이 속에 다양한 여성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조

직력과 의지력을 기초로 독립운동을 벌여갔다. 이러한 활동 중에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사회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볼 수 있다.

3.1운동 직전에 이루어진 2.8독립선언과정에서 동경의 여자유학생, 3.1만세운동 초기의 서울의 여성독립운동 지도자로서 김마리아와 황에스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동경에서는 조선에서와는 달리 활동 여지가 있어 유학생회가 결성되어 잡지를 발행하고 남녀 유학생간에 교류도 있었다. 세계대전 이후 세계조류의 변화 속에 1918년 12월부터 유학생들이 거대한 민족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던 중에 1919년 1월 6일 웅변대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는 여성 유학생들도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모임이 거듭되었으나 남학생들은 여학생에게는 활동참가에 대한 권유조차 없자 황에스터가 나서서 ‘여러분! 국가의 대사를 남자들만 하겠다는 겁니까? 수레바퀴는 혼자서는 달리지 못합니다’라고 열변을 토한 바도 있었다(박화성, 1965). 이후 남녀학생들이 함께 2.8독립선언을 준비하였고 여학생측에서는 운동비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2.8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명 이름에 여학생은 없었다.

1918년 동경여자친목회가 발행한 『여자계』 3호에 수록된 김마리아의 「여자 교육론」에서 ‘현대문명의 특징은’ ‘해방’이라 하면서 여성 해방의 가치를 옹호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않고, 여성 해방의 상위 가치를 나라와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한말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 여권과 국권 등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 바도 있었으나, 김마리아는 여성해방, 여권을 절대화하지 않음으로써 국권회복(일제시기에는 민족과 독립)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두어 독립운동 내부의 마찰의 소지를 없앴다.

### 3. 3.1운동과 여성

익히 알고 있듯이 3.1만세시위운동의 불은 무단 통치시기에 그나마 조직운영이 가능했던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대표로 구성된 민족대표가 붙였다. 그러나 그 확산은 종교계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 병원 등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학생 교사 종교인들, 각지에 일제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노동자 농민 상인 기생 등 극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한 거의 전민족적인 시위였다.

여기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과 여성주도의 만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한 서울의 만세시위운동은 3월 1일이 토요일로 연락관계 등의 문제가 있어 여학교로서 다수가 참가한 것은 경성여고보 뿐이었다. 3월 1일 시위에서 잡힌 여학생들은 대부분 방면조치 되었다. 이후 전문학교 남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3월 5일 다시 조직적으로 시위를 계획하였는데 이때 김원벽, 강기덕 등은 여학교 학생들과도 연결하였다.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경험하고 돌아온 김마리아와 황에스터 등은 이미 독립운동의 선배로서 국내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3월 4일 선배층인 김마리아 등과 후배층인 여학생들이 3월 5일에 계획된 학생만세시위의 참가여부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때 김마리아는 뜻밖에도 5일 만세시위 준비에 대해 ‘남학생들의 독립운동’이란 표현을 썼을 뿐만 아니라 “5일에 나가서 한 번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제히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세 부르러 나가고 싶은 사람은 개별로 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

(국사편찬위원회, 1991)라는 의견을 내었다. 여기서 ‘남학생들의 독립운동’이란 표현은 2.8독립선언 과정에서 여성유학생들을 대표로는 배제시켰던 남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발언은 겉으로는 만세시위운동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김마리아는 3.1만세운동, 나아가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강하였던 인물이었다. 운동가 집안이라 어려서부터 독립운동가들을 보아왔고 2.8독립선언에도 참가하였다. 정신여학교 일 수습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졸업도 하지 않고 2월에 급히 일본에서 귀국하여 여러 곳으로 돌며 2.8독립선언서와 소식을 전달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남학생들의 권유와 명분이 있다고 여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시위 참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행동하자는 입장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비롯해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시위 이외 운동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역단위의 만세시위는 대부분 연대시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여학생들이 결합해서 함께 하였는데 경찰은 여성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휩쓸렸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심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여학교에서 3월 5일 시위를 주도한 이아주는 심문하는 일본인 법관에게 “우리는 조선사람이요. 조선 사람이 조선독립을 소리높이 외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앞으로도 계속 만세를 부르겠소”라 하였다(이기서, 1988). 당시 분위기에 추종해서 휘둘린 것이 아니라 주체적 판단에 의해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소녀들의 열렬한 만세시위운동은 구미언론인이나 선교사들이 3.1운동의 특징으로 삼았던 바 있다. 10대 여성들은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유관순(1902~1920)은 충남 천안 병천, 동풍신(1904~1921)은 함

북 명천에서 일본헌병의 무차별 총격과 가족원들의 순국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주동자로서 활동하였다.

학생만이 아니라 중년의 여성 어윤희도 개성에서 먼저 만세시위를 위해 나섰다. 개성의 선언서 배포 등 책임자로서의 선도적인 활동결과 남성들도 만세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개성 3.1만세시위운동 참가자 중 가장 장기형인 징역 2년 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였는데 어윤희는 경찰의 심문에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울디까? 우리는 독립할 때가 왔으니까 꺾기를 하는 것이지요.”라면서 일제 경찰의 고문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당당히 표명하였다(3.1여성동지회, 1980).

만세운동에 참가한 이유가 남편을 뒤이어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경북 영덕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윤악이와 신분금이 그러하다. 남편들이 모두 장로교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영덕에서의 만세시위로 검거되었다. 이에 시장에서 윤악이가 앞장서 “우리는 여자인데도 한국독립을 희망하고 한국의 만세를 부르짖는다”고 연설하고 신분금은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大正8년 刑 제39호 판결문). “여자인데도”라는 표현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이 주도한다는 주위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면서 남편을 내세워 남편의 뜻을 이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 주위 사람들을 만세시위로 끌어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에 참여한 것은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던 윤희순, 남자현도 역시 이러한 방식을 썼다.

3.1운동 여성독립운동가 중 주목할 만한 계층이 기생이다. 해주, 통영, 수원, 진주 등지에서도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기생들은 학생들과 달리 별도의 사회망을 가졌다가 보다 독자적으로 시위를 결정하여 만세시위운동을 하면서 지역민의 만세를 견인하

였다. 해주 등지에서 확인되듯이 별도의 독립선언서를 써서 만세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기생들은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였고 사회적 재난에도 모금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하였다. 이들은 또 실제로 현금동원력을 가진 여성층이기도 하였다.

김마리아가 3월 5일 만세시위에 여학생들의 자율적 참가를 언급한 것은 다양한 활동방법이 있음을, 또 다음 단계의 지속적인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위한 역량비축 필요성을 알리고 포석한 것이었다. 3월 5일 만세시위에 대한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 이후 일제는 김마리아를 비롯하여 박인덕, 나혜석, 신준려, 황에스터, 안숙자 등 선배층 여성들을 대거 구속 조사하였다. 일제 경찰은 3.1운동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심증으로 선배층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김마리아는 8월에 가서야 면소되었다. 그리고 김마리아는 11월에 가서 다시 잡혀 수감되었다. 이때는 3.1만세시위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이 체포 이유였다. 3.1만세시위 관련한 고문후유증이 아직 그를 괴롭히고 있었으나 임시정부 지원활동이라는 목숨을 건 활동을 하였다. 이는 김마리아만이 아니라 당시 20대 이상의 선배층에서 자주 보여주었다. 이들은 3.1만세시위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지만 비밀결사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고 4월에 수립된 임정 등 독립운동단체들을 지원하였다.

1890년대 이전 출생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시점에는 이미 학교 교사나 다양한 사회적 활동만이 아니라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기 쉬운 만세시위운동에는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이 읽혀진다. 아직 국내에 3.1만세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인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

되었다. 그리고 다른 독립운동단체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외의 움직임에 여성들은 간 호사가 되거나 독립운동에 직접 도움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한 인원도 상당하였다.

#### 4. 만세운동 참가여성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10대 소녀들의 열렬한 만세시위 운동 참가이다. 당대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3.1운동 판결문이나 국가보훈처 여성유공자에서 당시 10대 비율을 내어보아도 40% 이상이다. 3.1운동에 1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학생들의 활발한 참가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3.1만세운동으로 서울에서 구속된 이들을 보면 지방출신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대부분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생활을 통해 당시 학생들 사이에 흐르는 정보를 아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이 3.1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교사나 친구들의 영향은 있었겠지만 부모와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이들과 달리 오로지 자신이 독립적으로 그 판단을 내렸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계 여성들의 활동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참가는 대부분 기독교계 학교가 시위만세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고 학교 교사나 졸업생 등 학교관계자들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

3.1만세시위에 참가한 기독교계 여성들에게 학교나 교회는 자기가 소속한 곳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관계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같은 교파의 학교와 교회는 만세운동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통이나 통신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비밀리에 만세시위운동이나 비밀 결사조직을 진행해야 했다. 이 때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여성들은 바로 이 동일 교파 소속의 교회와 학교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3.1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한 여성들과 관련 깊은 학교와 교파를 살펴보면, 서울의 이화, 공주 영명, 개성 호수돈, 평양 정의여학교 등은 기독교 감리교 계통이고 서울의 정신, 전주 기전, 광주 수피아, 대구 신명, 부산 일신여학교 등은 장로교계통이었다. 같은 교파 학교 사이에서는 3.1운동 이전부터 학생이나 교사교류 등을 하고 있었다. 유관순은 미 감리교측에서 운영한 공주 영명여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에 입학하였고, 공주 출신이자 이화학당 출신 김현경은 아펜젤러와 유관순 옥사 후 유해인수 작업을 하였다. 이에라는 이화학당 출신으로서 공주 영명여학교와 평양 정의여학교에서 교사가 되었다. 이화 영명·정의 세 학교는 모두 감리교계통의 여학교였다. 이처럼 학생교류만이 아니라 교사 충원이나 교류도 대부분 같은 교파 내에서 이루어졌다. 장로교로 대표되는 정신여학교의 졸업생들도 동일계통의 학교나 유치원의 교사 등으로 취업하였다. 김마리아나 그 형제들이 수피아여학교와 관련을 맺었던 것은 이러한 관계망이 형성된 결과였다.

학교와 교회, 병원 등을 기반으로 교사, 학생, 교회관계자들은 졸업생의 취업, 학교간의 유대, 교회 활동 등으로 순환이 가능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도 제공할 수 있었다. 선교사나 학교 관계자 등이 독립운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엔 기독교계 여성들이 민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출처: 국가보훈처

**[사진 1]**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옥고를 치루고 나온 여성독립운동가들

뒷줄 오른쪽 황애덕, 가운데 원 안의 사진은 화장이었던 김마리아를 편집해서 넣은 것임.

## 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여성

1919년 3.1운동은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강력한 요청과 다양한 국내외적 상황을 기초로 발화되었다. 3.1운동 전후 이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1919년 4월에 수립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상해 등지에서 온 독립운동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후 이 임시정부와 한성정부·러시아에 있던 대한국민의회 등이 합쳐져 9월 11일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2.8이나 3.1 운동은 준비과정에서나 독립선언문 내용이 거의 물성적인 내용이었는데 비해 상해 임시정부나 한성정부는 준비과정이나 직책에 남녀평등의 내용과 여성대표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에는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



출처: 이민사박물관

[사진 2] 1919년 10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요원들의 사진으로서 앞열 양쪽 중 왼쪽이 이화숙, 오른쪽이 김원경

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이란 내용이 있다(한시준, 1999). 이 3조와 4조는 남녀평등을 선포하고 공민권 있는 여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여성참정권은 뉴질랜드에서 1893년에 최초로 인정된 이후에도 당대 강대국인 영국에서 여성 30세 이상이라고 제한하여 1918년에서야 채택되었다. 미국은 1920년, 일본은 1945년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창제 폐지를 언급하였던 것은 당시 식민지 상태에서 여성인신매매와 일제가

도입한 공창제의 폐해가 심각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시정부 헌장은 몇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정신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으로 이어졌다.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여성 임원들도 배출되었다. 초기 사례만 들어보자. 이화숙(1893~1978)은 국내에서 1919년 4월에 조직된 한성정부 민족대표였고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1919년 7월 임시정부 후원단체인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 9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參事), 10월에는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과 동포 구원활동을 펼쳤다.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김마리아는 3.1운동 이후 일제경찰에 구금 기소되었다가 1919년 8월에 면소되었다. 출옥 후 극심한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에도 10월에 조직된 대한민국의국부인회 회장을 받아들였다. 국내 15-16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규합과 군자금 모집을 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11월에 오현주 부부의 밀고에 의해 11월 핵심간부들이 체포 연행되었다. 김마리아는 3년형이 구형 언도되었으며 건강이 악화되었다.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망명을 추진하여 1921년 망명에 성공하였다. 그는 1923년 2월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황해도대의원에 선출되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여성 대표들을 뽑았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실속있는 활동과 임정이 시대적 과제를 수용한 결과였다.

김마리아는 상해로 망명한 이후 당시 복잡했던 임시정부 모습에 직면하였다. 이때 임시정부 내 다양한 의견들이 수습이 안되어서 임시정부 개조, 창조를 두고 논쟁이 격심하였다. 당시 고모 김순애와 고모부인 김규식은 모두 창조파의 입장에 있었으나 김마리아는 개조의 입장에 섰다. 김마리아가 가족관계 등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의 사진은 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상해 임정 직원 일동 기념촬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과묵한 까닭인지 초기 임시정부의 공식 사진에서 여성이 함께 한 것으로 이보다 더 빠른 공식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여기에 첫줄 양 가장자리에 여성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꽤 상징적이다. 이화숙 김원경은 다른 직책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시기 이들은 애국부인회 회장과 부회장이었다. 김원경은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

동인민대표회의에 권애라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임시정부하의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신식교육을 받고 활동하던 신여성과 그렇지 않았던 여성 간의 어쩔 수 없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정화는 아래와 같이 썼다.

상해는 당시 여성들만의 모임으로 대한부인회 등이 있었으나 나는 그 단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모임의 주동 인물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화여전 등을 나온 이른바 신여성으로서 그중 몇몇은 신식교육을 받고 앞서가는 여성임에 하고 눈 밖에 나는 행동으로 주위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래서 넓지 않은 상해의 교포사회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했다.

나도 그런 단체는 신식 공부한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하고 가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중 몇몇 사람하고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하락)(정정화, 2007)

상해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지원한 여성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정신과 교육 등으로 조선 전통 규범을 뛰어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였던 신여성이 있는가 하면 양반 문벌가문 출신으로서 가족봉양을 책임지고 전통적 부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가진 두 여성 그룹이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고 소통을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정정화가 언급하듯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대의 하에 갖가지 편견이 약화되고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해 가는 과정에서 두 그룹은 접근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갈등융합의 힘은 여성독립운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나와 관련이 깊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6. 맺음말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아울렀던 임시정부 초기와 달리 8.15해방기엔 사회주의계는 소수만 참가하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가 전체를 아울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제 시기는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격변기인 까닭에 (여성)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봉합하고 진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활동의 힘이었다. 이 지점은 오늘날 우리의 과제인 남측의 남남갈등해소, 남과 북의 교류 강화와 남북 갈등약화 등을 위한 해결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숱한 연구 중에 아직 여성에 초점을 맞춘 자료발굴이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자료발굴에서부터 시작하여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3.1운동과 3.1운동 이후 국내외 사회운동과의 연속과 단절, 인식의 성숙과 변화 등을 관통해 보는 것이다. 3.1운동에서 기독교계 여성의 활동과 존재감은 강력하였으나

1920년대에 들어가서는 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였다. 어떠한 조건의 변화가 독립운동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지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현 한국, 아니 분단시대의 갈등진단과 해결방안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여성독립운동가에 접근하는 관점의 문제이다. 유명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남성연구자들도 꽤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젠더관점이 반영되어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성들은 공식적 직위나 직함을 갖지 않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듯이 생사를 오가는 활동 속에 글을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글이나 문서는 특히 일제의 추적도구가 되었고, 독신여성들은 생계문제로, 기혼여성들은 가족 뒷바라지에 실상 자신의 기록을 남길 겨를이 없었다. 일제가 남긴 것이 아니라면 내밀한 내용은 해방 이후 회고담 형식의 글이 대부분이다. 구술만이 아니라 구전에 의거한 것도 있어 좀더 치밀한 사료평가가 요구된다. 하지만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는 과감한 해석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삼일운동 4』14, 1991.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3.1운동 60주년 기념』, 3.1여성동지회, 1980.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례 그 사랑과 실천』, 태광문화사, 1988.  
 이상국, 『나는 조선의 총구다』, 세창미디어, 2012.  
 정정화, 『長江日記 : 양자강 푸른 물결 위에 실린 한 여성 독립 운동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학민사, 1998.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편, 『강원여성독립운동』, 정언, 2013.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박화성, 『송산 황애덕선생의 사상과 생활: 새벽에 외치다』, 휘문출판사, 1965.